

# 국내 초등학생 및 중학생의 성별에 따른 직접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의 차이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건양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교실,<sup>1</sup>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교실, 자살과 학생 정신건강연구소,<sup>2</sup>  
희망가득 소아청소년 마음 클리닉,<sup>3</sup> 국립서울병원 청소년정신과<sup>4</sup>

정다운<sup>1</sup> · 김지웅<sup>1</sup> · 홍현주<sup>2</sup> · 김승준<sup>1</sup> · 이나현<sup>1</sup> · 양지선<sup>1</sup> · 안송이<sup>3</sup> · 임우영<sup>1</sup> · 정경운<sup>4</sup>

## Gender Differences of Direct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Da-un Jeong, M.D.,<sup>1</sup> Ji-Woong Kim, M.D., Ph.D.,<sup>1</sup> Hyun-ju Hong, M.D., Ph.D.,<sup>2</sup>  
Seung-Jun Kim, M.D., Ph.D.,<sup>1</sup> Na-Hyun Lee, M.D.,<sup>1</sup> Ji-sun Yang, M.D.,<sup>1</sup>  
Song-ii Ahn, M.D.,<sup>3</sup> Woo-Young Im, M.D.,<sup>1</sup> Kyungun Jhung, M.D., Ph.D.<sup>4</sup>

<sup>1</sup>Department of Psychiatry, Kon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Konyang University Hospital, Daejeon, Korea

<sup>2</sup>Department of Psychiatry, Hallym University Sacred Heart Hospital, Suicide and School Mental Health Institute, Hallym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nyang, Korea

<sup>3</sup>Hopeful Psychiatric Clinic, Anyang, Korea

<sup>4</sup>Department of Adolescent Psychiatry, Seoul National Hospital, Seoul, Korea

86

### ABSTRACT

**Objectives** :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gender differences of direct aggression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Korea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Methods** : Parents of 946 elementary school students(age 9.54 ± 1.72 years, 485 boys, 461 girls) completed the Child Behavior Checklist(CBCL). Six-hundred-and-three middle school students(age 13.98 ± 0.93 years, 301 boys, 302 girls) completed the Youth Self-Report(YSR). Independent t-test, chi-square test, and Fisher's exact test were used.

**Results** : Boys had significantly higher direct aggression scores than girls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p < 0.001). There was no significance gender difference of relational aggression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p=0.235). In middle school students, boys had significantly higher direct aggression than girls(p=0.017), and girls had significantly higher relational aggression compared to the boys(p < 0.001).

**Conclusions** : Our results suggest the presence of gender differences in manifestation of aggression subtypes in Korea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These gender difference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prevention and intervention approaches of agg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KEY WORDS** : Direct aggression · Relational aggression · Gender · Child Behavior Checklist · Youth self-Report · children · Adolescents.

**Received:** August 14, 2015 / **Revised:** September 24, 2015 / **Accepted:** October 5, 2015

This study was supported by a research fund from Seoul National Hospital, Ministry of Health & Welfare, Republic of Korea.

**Corresponding author:** Kyungun Jhung, Department of Adolescent Psychiatry, Seoul National Hospital, 398 Neungdong-ro, Gwangjin-gu 04933, Seoul, Korea

Tel : 02) 2204-0323 · Fax : 02) 2204-0356 · E-mail : kyungun12@gmail.com

## 서 론

최근 소아 청소년 시기에 빈번한 폭력 노출 및 이로 인한 문제들이 사회적 이목을 끌고 있는 가운데, 이와 연관성이 높은 공격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소아 청소년기의 공격성은 대부분의 정신병리와 관계되어 있으며 향후 발달 및 성인기의 정신 건강에 끼치는 영향을 생각해 볼 때 중요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공격성은 일반적으로 타인을 의도적으로 다치게 하거나 해하는 행동으로 정의된다.<sup>1)</sup> 공격성은 동일한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공격성에 대한 연구에서 이러한 다양성에 대한 분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관계로 공격성의 기전, 치료 등에 대한 연구에 한계가 있어왔다.<sup>2)</sup> 공격성에 대한 구분 중 가장 오래된 구분 중의 하나는 격정형 공격성(hot aggression)과 냉정형 공격성(cold aggression)으로 구분하는 것이다.<sup>3)</sup> 격정형 공격성은 반응적(reactive), 정서적(affective), 방어적(defensive), 충동적(impulsive)인 형태로 나타나며, 각 영문의 알파벳 첫 자를 모아서 RADI 공격성이라 이름 붙이기도 한다. 이와 대조되는 공격성은 사전적(proactive), 도구적(instrumental), 계획적(planned)인 형태의 공격성으로, 각 영문의 알파벳 첫 자를 모아서 PIP 공격성이라 이름 붙이기도 한다. Österman 등<sup>4)</sup>은 공격성을 직접 언어적(direct verbal), 직접 신체적(direct physical), 간접적(indirect) 공격성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이때 간접적 공격성은 사회적으로 교묘하게 조종하거나, 우회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말하는데, 남학생들에서는 직접적 형태의 공격성이 우세하고, 여학생들에게서는 간접적 형태의 공격성이 우세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공격성의 다양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공격성의 다양한 측면을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현재 아동 및 청소년에게 널리 사용되고 있는 확립된 평가 도구 중 이러한 공격성의 측면들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는 도구를 이용하는 것이다. 아동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CBCL)는 널리 사용되는 평가 도구로서, 아동 및 청소년에서 공격성을 정량화에 유용하게 사용된다.<sup>5)</sup> CBCL은 아동의 문제행동을 부모의 평정을 통해 측정하게끔 하는 평가 도구로써 공격성을 측정하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Lightart 등<sup>6)</sup>은 CBCL의 공격성 척도의 요인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공격성 항목들은 직접적 공격성(direct aggression)과 관계적 공격성(relational aggression)의 2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관찰하였다. Steiner 등<sup>2)</sup>은 CBCL의 직접적 공격성 요인은 앞서 언급한

RADI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은 PIP 공격성과 부합하는 면이 있다고 하였다. 결국,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CBCL를 이용하여 통상적으로 구분되는 유형의 공격성을 상당히 의미 있게 평가할 수 있다고 하겠다.

특히, 공격성의 유형은 성별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관찰되어왔다. Crick 등<sup>7)</sup>은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자와 여자 간에 공격성의 형태가 확연히 차이가 난다고 보고하였다. 이들은 앞서 언급한 Österman 등<sup>4)</sup>의 연구에서와 유사하게 남자에서는 확연히 드러나는 형태의 공격성이 우세하였고, 여자에게서는 관계적 형태의 공격성이 우세하다고 보고하였다. 고위험군에 속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역시 남자에게서는 직접적 형태의 공격성이 우세하고, 여자에게서 관계적 형태의 공격성이 우세함이 관찰되었다.<sup>8)</sup> 하지만, Tiet 등<sup>9)</sup>은 남녀 간에 관계적 공격성의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공격성은 사회문화적 요소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외국의 연구 결과를 일괄적으로 국내에 적용시키기 어렵다. 본 연구는 국내의 초등학교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성별에 따라 직접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되었다.

## 방 법

### 1. 대 상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 및 세종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교와 유선 연락을 통하여 연구에 대하여 설명한 후, 참여 의사를 보인 15개 학교를 대상으로 담당 교사 및 학교 관계자에게 자세한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최종적으로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2개교 학생을 대상으로 2013년 11월 18일부터 2013년 11월 25일 까지 총 2,470명에게 설문지가 배포되었다. 총 환수된 검사지는 1,530명으로 초등학교생 946명 중 남학생은 485명, 여학생은 461명이었고, 중학생 603명 중 남학생은 301명, 여학생은 302명이었으며 참여자들은 모두 연구에 서면 동의하였다. 본 연구는 의과대학 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취득하였다.

### 2. 방 법

#### 1) 한국판 아동행동 평가척도(Korean-Child Behavior Checklist, K-CBCL)

아동의 문제 행동을 평가하는 부모용 평가 척도이다. Achenbach<sup>5)</sup>의 Child Behavior Checklist를 오경자 등<sup>10)</sup>이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표준화한 K-CBCL을 사용하였다. 사회능력척도와 문제행동증후군 척도로 구성되며, 사회능력척

도는 사회성척도와 학업수행의 두 가지 소척도로, 문제행동 증후군 척도는 11개(위축, 신체증상, 불안/우울, 사회적 미성숙,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 문제, 비행, 공격성,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 총 문제행동)의 소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3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0점, '가끔 그렇다' 1점, '자주 그렇다' 2점)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 수록 문제행동 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 2) 한국판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Korean-Youth Self Report, K-YSR)

아동행동평가척도를 일부 수정하여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기 보고식 척도이다. Achenbach<sup>11)</sup>의 Youth Self Report를 오경자 등<sup>12)</sup>이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표준화한 '한국판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를 사용하였다. 아동행동평가척도와 동일한 척도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문제행동증후군 척도의 문항구성은 K-CBCL 내용과 대부분 공통된 119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 3) 공격성 평가

본 연구에서는 Lighthart 등의 연구에 따라 K-CBCL과 K-YSR의 개별 항목들로부터 공격성의 2가지 형태인 직접 공격성(direct aggression)과 관계 공격성(relational aggression)을 도출하였다.<sup>6)</sup> 2가지 하위 요인을 구성하는 개별 항목은 Table 3과 같다.

## 3. 통계 분석

참여자들의 성별 간 인구학적 변인 차를 분석하기 위해, 연령의 경우 독립표본 t 검정(independent t test)을 부모의 교육 수준, 사회경제적 수준의 경우 교차분석(chi-square test 또

는 Fisher's exact test)을 수행하였다. 참여자들의 성별 간 직접 공격성, 관계 공격성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각각의 원 점수를 T 점수로 변환한 후 독립표본 t 검정을 수행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은 0.05 미만으로 정의하였고 양측 검정을 시행하였다.

## 결 과

### 1. 인구학적 특성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초등학생의 경우  $9.54 \pm 1.72$ 세였고, 이중 485명은 남아, 461명은 여아였다. 중학생의 경우  $13.98 \pm 0.93$ 세였고, 이중 301명은 남아, 302명은 여아였다.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 연령, 부모의 교육 수준, 사회 경제적 수준에서 성별간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Table 1, 2). 중학생의 경우 연령, 부모의 교육 수준에서는 성별간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사회 경제적 수준에서는 성별간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p=0.035$ ). 즉 중학생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사회경제적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게 측정되었다(Table 3).

### 2. 성별에 따른 직접 및 관계 공격성 비교

초등학생의 경우 직접 공격성에서는 성별간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p < 0.001$ ).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유의미하게 직접 공격성 T-score가 높았다. 관계 공격성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4). 중학생의 경우 직접 공격성과 관계 공격성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p=0.017$ ;  $p < 0.001$ ). 직접 공격성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반면 관계 공격성의 경우 여학

**Table 1.** Demographic data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n=946)

	Boys(n=485)	Girls(n=461)	p-value
Age(year)	9.5±1.7	9.6±1.7	0.076
Father's education			0.881
Postgraduate degree	54	51	
Bachelor's degree	293	278	
High school graduate	123	120	
Middle school graduate	2	4	
Mother's education			0.871
Graduate	13	14	
Ungraduated	293	272	
High school	162	158	
Middle school	4	2	
Socioeconomic status			0.697
High	0	1	
Middle-high	17	24	
Middle	256	266	
Middle-low	132	124	
Low	29	29	

**Table 2.** Demographic data of Middle school students(n=603)

	Boys(n=301)	Girls(n=302)	p-value
Age(year)	14.0±1.0	14.0±0.9	0.408
Father's education			0.606
Postgraduate degree	38	29	
Bachelor's degree	141	142	
High school graduate	93	100	
Middle school graduate	4	6	
Mother's education			0.283
Graduate	35	23	
Ungraduated	131	128	
High school	108	126	
Middle school	5	5	
Socioeconomic status			0.035*
High	3	2	
Middle-high	46	22	
Middle	158	172	
Middle-low	50	58	
Low	8	8	

\* :  $p < .05$ , \*\* :  $p < 0.01$

**Table 3.** Subtypes of the CBCL/YSR aggression scale

Subtype 1 : Relational aggression	Subtype 2 : Direct aggression
3. Argues a lot	16. Cruelty, bullying or meanness to others
7. Bragging, boasting	20. Destroys his/her own things
19. Demands a lot of attention	21. Destroys things belonging to his/her family or others
22. Disobedient at home	37. Gets in many fights
23. Disobedient at school	57. Physically attacks people
27. Easily jealous	97. Threatens other people
68. Screams a lot	
74. Showing off or clowning	
86. Stubborn, sullen or irritable	
87. Sudden changes in mood or feelings	
93. Talks too much	
94. Teases a lot	
95. Temper tantrums or hot temper	
104. Unusually loud	

Note : numbers refer to item numbers of the CBCL/YSR. CBCL : Child Behavior Checklist, YSR : Youth Self-Report

**Table 4.** The gender difference of aggression subtypes i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Boys	Girls	p-value
Elementary school(N=946)	n=485	n=485	
Direct aggression	51.5±12.2	48.4±6.6	<0.001*
Relational aggression	50.4±10.6	49.6±9.3	0.235
Middle school(N=603)	n=301	n=302	
Direct aggression	51.0±10.7	49.0±9.2	0.017*
Relational aggression	48.1±9.5	51.8±10.2	<0.001*

\* :  $p < .05$ , \*\* :  $p < 0.01$

성이 남학생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Table 4).

## 고 찰

본 연구의 결과, 초등학교에서는 남자에서 직접적 공격성이 여자에서보다 더 많은 것으로 관찰되었고, 중학교에서는 직접적 공격성의 정도가 남자에게서 더 크고, 관계적 공격성이 여자에게서 더 많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현재까지 공격성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주로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형태의 공격성에 대한 연구들이 많았다. 이로 인해, 공격성은 주로 남자와 관련된 문제로 생각되었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여자의 공격성은 남자들의 공격성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왔다.<sup>13,14)</sup> 공격적 행동이 13세 이전 남자에서 여자보다 4배 정도, 18세 이하의 남자에서는 여자보다 6배 정도 빈번하다는 연구가 이러한 견해를 지지하는 대표적 예이다.<sup>15)</sup> 그러나,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면서부터 공격성의 정도가 남녀 간에 다소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대체로 유사함이 관찰되어왔고, 여자도 타인을 의도적으로 해하려 하고, 이러한 행동을 상습적으로 행함이 관찰되었다.<sup>1)</sup> 특히, 아동/청소년에서 관계적 공격성이 향후 위험 행동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sup>16)</sup> 결국, 공격성이 남자에게서 주로 나타난다는 오해는 많은 부분 공격성에 대한 정의와 평가의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공격성이 나타나는 양상은 남녀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이 그 간의 많은 연구에서 관찰되어왔다.<sup>1)</sup>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 직접적 공격성이 남자에게서 더 많고, 중학교에서 관계적 공격성이 여자에게서 더 많은 것으로 관찰된 본 연구 결과는 이전의 연구 결과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Archer와 Westman은 11세 미만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자가 신체적이고 직접적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고 여자들은 언어적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고하였다.<sup>17)</sup> 핀란드에서 시행된 연구에서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간접적 형태의 공격성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up>18)</sup> 또한, 핀란드, 이탈리아, 이스라엘 폴란드 국적의 남녀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 국적, 인종에 상관없이 남자들은 신체적 공격성을 더 많이 나타내고, 여자들은 간접적 공격성을 더 많이 나타냄이 관찰되었다.<sup>4)</sup> 본 연구의 결과도 이들 연구 결과들과 전반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공격성 유형의 성별에 따른 편향성은 서양 문화뿐만 아니라 한국과 같은 동양

문화권에서도 유사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공격성 유형의 성별에 따른 편향성이 본 연구와 서양 문화권에서의 연구 사이에 유사하다는 점은, 성역할(gender role)과 성행동(gender behavior)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남아들은 친구 관계에서 신체적/물리적인 우월성에 더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는 반면, 여아들은 사회적/대인 관계에 보다 큰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다.<sup>1)</sup> 또, 남아들은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공격적 행동을 했을 때에 오히려 남자다움에 대한 인정 등을 통해 긍정적 보상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여아들은 이러한 형태의 공격성을 보일 경우 남아들에 비해 더 엄격한 지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sup>19)</sup> 또한, 직접적 공격성에 대한 친구들의 반응도 공격성의 양상에 영향을 미친다. 남자 아동이 직접적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 유사한 행동을 여자 아동이 했을 때에 비해 친구들의 반응이 호의적인 경향이 있다.<sup>20)</sup> 뿐만 아니라, 남자 아동이 여성스럽게 느껴지는 행동을 하는 경우 친구들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sup>21)</sup> 결국, 남자 아동은 분노를 그대로 직접적인 형태로 표출하는 성향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여아들은 공격적 행동의 부정적 결과를 보다 잘 예측하고, 자신의 분노를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감추는 성향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성별에 따른 공격성 유형의 차이는 사회화환경적 요인 뿐만 아니라 성별에 따른 유전적 차이 등의 생물학적 영향에 기인될 가능성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공격성은 유전성이 높은 기질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네덜란드에서 실행된 쌍둥이 연구 결과, 직접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는 일부만 겹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sup>6)</sup> 이러한 유전적 영향의 차이는, 직접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이 기질, 발달 경로 등에 있어 다른 개별적 아형일 가능성을 뒷받침해준다. Achenbach 등<sup>22)</sup>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동일한 기준으로 CBCL에서 공격성의 아형을 분류한 후 임상적, 진단적 측면에서 연관성을 살펴본 있는데, 직접적 공격성의 6문항 중 5문항은 품행장애의 증상과 일치하였으며 관계적 공격성의 5문항은 적대적 반항장애의 증상과 일관된 양상을 보였고 그 중 2문항은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의 증상과 일치하였다. 이는 두 공격성 유형이 독립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지지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볼 때 향후 연구에서는, 공격성 유형 변수를 사용하는 것이 이질성이 높은 일반적 공격성 변수를 사용하는 것보다 기저의 생물학적 기전을 조사하는데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언어의 습득과 언어 사용 능력은 일반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sup>23)</sup> 관계적 공격성 중 상당히 많은 부분이 언어의 사용을 통해 표현되기 때문에, 언어

사용 능력은 관계적 공격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실제로, 3~5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언어 발달 정도와 관계적 공격성간에 양의 상관 관계가 있음이 관찰되었고, 이러한 상관성은 사회경제적 수준, 나이 등을 보정하였을 때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up>24)</sup> 특히, 여아들에게서 남아에 비해 이러한 상관의 정도가 더 큰 것으로 관찰되었다.<sup>24)</sup> 이러한 연구는 결국 언어 사용 능력이 우수한 여성이 남성에 비해 관계적 공격성을 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와는 다른 측면에서 공격성과 언어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연구도 있다. Estrem<sup>25)</sup>은 언어 사용 능력을 표현 능력과 이행 능력으로 나눈 후, 표현 능력이 우수할수록 관계적 공격성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하에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가설과는 달리 관계적 공격성에 비해 신체적/물리적 공격성이 언어 능력에 더 많은 영향을 받으며, 언어 이해 능력의 저하가 신체적/물리적 공격성의 예측인자가 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이들은 언어 표현 능력이 불량할수록 오히려 관계적 공격성의 높음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자신을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 쉽게 관계적 공격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할 때, 언어 사용 능력만으로 공격성 및 공격성의 성별 편향성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초등학교의 경우 부모보고형 설문지, 중학생은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진행되었다는 점이 있었다. K-CBCL과 K-YSR은 아동 청소년의 행동 및 정서와 관련된 전반적인 평가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도구이나 대상 연령에 따라 설문 보고자가 다르기 때문에 오류 발생의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로 인해 초등학교 중학생 두 군의 공격성 및 정서 행동 특성 차이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었다. 추후 좀 더 다양하고 타당성 있는 한국형 표준화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공격성 특성에 대한 연령, 계층 등 기타 변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직접적 공격성의 남자 편향성은 초등학교와 중학생 모두에서 관찰되었으나, 관계적 공격성의 편향성은 중학생에서만 관찰되고 초등학교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관계적 공격성의 형성에 성역할의 발달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여성 성역할에 대한 이해가 확고해짐에 따라 관계적 공격성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sup>26)</sup> 따라서,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이해가 더 완전히 자리잡는 중학생 시기에 관계적 공격성의 여성 편향성이 보다 더 확연히 드러남을 시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발달 경로에 있어 나타나게 되는 성별에 따른 생물학적 차이 또한 영향을 줄 수 있겠다.

본 연구는 K-CBCL를 이용하여 초등학생 및 중학생에서 직접적 공격성 및 관계적 공격성을 비교 분석한 연구이다. 본 연구 결과는, 직접적 공격성과 관련한 남성 편향성 및 관계적 공격성과 관련된 여성 편향성이 서양 문화권만이 아닌 우리나라에도 적용됨을 시사한다.

## REFERENCES

- (1) **Crick NR, Grotpeter JK.**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 1995;66:710-22.
- (2) **Steiner H, Silverman M, Karnik NS, Huemer J, Plattner B, Clark CE, Blair JR, Haapanen R.** Psychopathology, trauma and delinquency: subtypes of aggression and their relevance for understanding young offenders. *Child Adolesc Psychiatry Ment Health* 2011;5:21.
- (3) **Steiner H, Saxena K, Chang K.** Psychopharmacologic strategies for the treatment of aggression in juveniles. *CNS Spectr* 2003;8:298-308.
- (4) **Österman K, Björkqvist K, Lagerspetz KM, Kaukiainen A, Landau SF, Fraczek A, Caprara GV.** Cross-cultural evidence of female indirect aggression. *Aggressive Behavior* 1998; 24:1-8.
- (5) **Achenbach TM.**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4-18 and 1991 profile. Burlington,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1991b.
- (6) **Ligthart L, Bartels M, Hoekstra RA, Hudziak JJ, Boomsma DI.** Genetic contributions to subtypes of aggression. *Twin Res Hum Genet* 2005;8:483-491.
- (7) **Crick NR, Casas JF, Mosher M.** Relational and overt aggression in preschool. *Dev Psychol* 1997;33:579-88.
- (8) **McEvoy MA, Estrem TL, Rodriguez MC, Olson ML.** Assessing relational and physical aggression among preschool children Intermethod agreement. *Topic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2003;23:51-61.
- (9) **Tiet QQ, Wasserman GA, Loeber R, McReynolds LS, Miller LS.** Developmental and sex differences in types of conduct problem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001;10:181-197.
- (10) **Oh KJ, Lee HL.** Development of the Korean Child Behavior Check-list preliminary study. *J Korean Neuropsychiatir Assoc* 1990;29:452-462.
- (11) **Achenbach TM.** Manual for the Youth Self-Report and 1991 profile. Burlington,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1991c.
- (12) **Oh KJ, Hong KE, Lee HR.** Korean-Youth Self Report(K-YSR). Seoul, Korea: Jungang Aptitude Research Center;1997.
- (13) **Conway AM.** Girls, aggression, and emotion regulation.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2005;75:334.
- (14) **Hadley M.** Relational, indirect, adaptive, or just mean: Recent studies on aggression in adolescent girls-Part II. *Studies in Gender and Sexuality* 2004;5:331-350.
- (15) **Coie JD, Dodge KA.** Aggression and antisocial behavior;1998.
- (16) **Crick NR.** The role of overt aggression, relational aggression, and prosocial behavior in the prediction of children's future soci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1996;67:2317-27.
- (17) **Archer J, Westeman K.** Sex differences in the aggressive behaviour of schoolchildren.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981;20:31-36.
- (18) **Björkqvist K.** Sex differences in physical, verbal, and indirect aggression: A review of recent research. *Sex Roles* 1994;30: 177-188.
- (19) **Zahn-Waxler C, Polanichka N.** All Things Interpersonal: Socialization and Female Aggression;2004.
- (20) **Fagot BI, Hagan R.** Aggression in toddlers: Responses to the assertive acts of boys and girls. *Sex Roles* 1985;12:341-351.
- (21) **Fagot BI.** The child's expectations of differences in adult male and female interactions. *Sex Roles* 1984;11:593-600.
- (22) **Achenbach TM, Dumenci L, Rescorla LA.** DSM-oriented and empirically based approaches to constructing scales from the same item pools. *J Clin Child Adolesc Psychol* 2003;32: 328-340.
- (23) **Bornstein MH, Hahn C-S, Haynes OM.** Specific and general language performance across early childhood: Stability and gender considerations. *First Language* 2004;24:267-304.
- (24) **Bonica C, Arnold DH, Fisher PH, Zeljo A, Yershova K.** Relational aggression, relational victimization, and language development in preschoolers. *Social Development* 2003;12: 551-562.
- (25) **Estrem TL.** Relational and physical aggression among preschoolers: The effect of language skills and gender. *Early Education & Development* 2005;16:207-32.
- (26) **Bowie BH.**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the developmental process. *Journal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ic Nursing* 2007;20:107-115.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국내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직접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의 성별간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946명의 초등학생(9.54±1.72세, 남아 485명, 여아 461명)의 경우 부모 보고를 통해 K-CBCL를 시행하였다. 중학생의 경우 603명의 대상자가(13.98±0.93세, 남아 301명, 여아 302명) 자가보고를 통해 K-YSR를 시행하였다. 성별간 공격성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 및 교차 분석(chi-square test or Fisher's exact)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초등학생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유의미하게 직접 공격성의 T-score가 높았으며( $p < 0.001$ ) 관계 공격성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 = 0.235$ ). 중학생의 경우 직접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었는데, 직접 공격성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았고( $p = 0.00$ ;  $p < 0.000$ ), 관계 공격성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p = 0.017$ ;  $p < 0.001$ ).

**결론**

본 연구는 한국의 초등학생 및 중학생에서 성별 간 공격성 하위 요인의 차이가 존재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성별 간 차이가 향후 아동 청소년 공격성의 예방 및 개입 방향 수립에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심 단어** : 직접적 공격성 · 관계적 공격성 · 성별 · 아동행동평가척도 · 청소년자기행동평가척도 · 소아청소년.